

5. 한 말

1895년(고종 32)부터 1914년까지 한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지방통치제도 개편이 단행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1895년에 도·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의 고을과 지방관의 호칭이 ‘군(군수)’으로 단일하게 되었다. 둘째, 1895년에 8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23부제가 실시됐다가, 이듬해에 13도로 바뀌었다. 셋째, 1906년에 모든 월경지와 대부분의 두읍지가 정리되었다. 넷째, 면·촌·방·사·리·부 등의 면급 호칭이 면으로 단일화하고, 관리와 청사가 설치됨으로써 면은 정식 행정구획이 되었다. 다섯째, 1914년에 군·면·리가 대대적으로 통폐합되어 통합 전의 329군 4,336면 6만 1,473동리에서 220군 2,521면으로 줄었다. 그와 함께, 통합되는 쌍방의 이름 중 한 글자씩 합성해 새로운 지명을 만드니 생소하고 무의미하며 특히 한국인의 생활 전통과도 동떨어진 군·면·리 이름이 되었다. 여섯째, 같은 해에 인구가 밀집한 좁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도시로서 ‘부·시’제가 신설되었다. 일곱째, 도·부·군의 행정기능을 제외한 재정·사법·경찰·군사 기능이 분리되었다. 이는, 지방관이 순수 전임행정관으로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조치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개혁의 내용 중 일부는 일찍이 조선왕조가 건국 초기에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었고 주로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효율적으로 침략·지배·수탈하기 위해 조직하고 강제한 것이었다.

어쨌든 1895년(고종 32)에 순천도호부는 순천군으로 바뀌었으며, 그와 동시에 순천군은 남원부에 속하였다. 같은 해에 돌산군이 나주부 소속으로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서 남해와 순천만·광양만의 많은 섬들이 돌산군 관할지역으로서 순천군에서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3도제 실시

1908년 이후 순천군 면·리·동 명칭

면 명	리 명
용두면(60리)	상동리 죽동리 구림리 하사리 상내리 와온리 유흥리 노월리 월산리 송잠리 농주리 구동리 선학리 계당리 무룡리 을 리 송정리 해창리 중흥리 도룡리 서당리 신월리 원동리 용전리 발흥리 목거리 당두리 호두리 방축리 구상리 대법리 송산리 성산리 좌아리 대가리 남가리 서가리 월전리 신흥리 학동리 낙선리 신기리 상삼리 삼동리 평화리 북성리 상비리 응봉리 봉서리 산두리 봉암리 향매리 신대리 미계리 매안리 선월리 신성리 노동리 한유리 통천리
해촌면(25리)	마산리 풍덕리 대안리 소안리 용곡리 연향리 명말리 울산리 대석리 신월리 운동리 연동리 조례리 두지리 비봉리 은곡리 범암리 왕지리 현남리 대동리 장치리 주영리 석 리 재궁리 석현리
서 면(60리)	구상리 흥대리 연동리 학동리 세동리 마륜리 용곡리 용림리 을 리 건천리 압곡리 교항리 월평리 돌거리 화정리 당본리 강청리 선평리 금평리 대동리 신기리 구룡리 지본리 진신리 판교리 재궁리 기동리 추동리 송내리 원동리 청소리 심원리 입석리 유본리 죽평리 운평리 외병리 월곡리 용당리 죽동리 죽청리 당천리 구만리 둔대리 개운리 학구리 송원리 장척리 대구리 와요리 회룡리 비월리 덕진리 산정리 산우리 월산리 동산리 방석리 암촌리 북차리
황전면(66리)	죽청리 상검리 농소리 하평리 평촌리 저촌리 하검리 수평리 신촌리 고산리 월계리 분황리 황학리 발산리 지당리 연당리 외구리 내구리 봉동리 덕계리 십이천리 월산리 자은리 성암리 봉정리 죽동리 내동리 장성리 잔정리 장변리 백야리 용암리 구동리 약수리 모전리 각문리 미초리 덕림리 화평리 구룡리 산령리 신기리 구계리 회룡리 중기리 별락리 덕월리 도원리 도룡리 대치리 건천리 교동리 선변리 금평리 가소리 수락리 용서리 칠안리 비촌리 진변리 용림리 용두리 광암리 봉암리 신평리 청룡리
월등면(31리)	유평리 외동리 두지리 송산리 월궁리 섬계리 운곡리 주동리 요지리 화지리 망치리 장선리 장척리 계영리 당산리 월곡리 계당리 용정리 신월리 갈전리 신성리 농곡리 병운리 무평리 망월리 가장리 명산리 신대리 둔대리 월평리 화정리
쌍암면(68리)	두모리 회동리 월평리 온동리 울전리 신계리 쌍교리 중흥리 유서리 흑석리 구룡리 유치리 유동리 등계리 대덕리 학구리 서평리 봉곡리 평지리 중대리 상대리 구수리 강촌리 용선리 송정리 지동리 염사리 괴목리 백현리 대장리 축내리 고산리 도목리 연동리 택촌리 구암리 사평리 서정리 도평리 사현리 내동리 군장리 월내리 남암리 용계리 석동리 서동리 성산리 신대리 송전리 신창리 칠성리 선학리 죽림리 무학리 유천리 매암리 기룡리 죽천리 두지리 용강리 두평리 울치리 남정리 석정리 신촌리 흥촌리 저동리
주암면(65리)	행정리 오산리 용지리 하주리 중주리 상주리 선치리 길촌리 용전리 운곡리 접치리 보령리 복다리 용강리 천평리 동촌리 감성리 부촌리 장동리 신기리 쌍산리 덕림리 용촌리 수평리 용곡리 장기리 임촌리 고산리 호암리 이문리 호곡리 문길리 신촌리 요곡리 산산리 구산리 희영리 둔대리 환곡리 문성리 죽림리 금곡리 두지리 모전리 용문리 덕흥리 원동리 월봉리 비룡리 한동리 화평리 궁각리 매우리 약촌리 백록리 구촌리 대구리 연동리 내동리 상어리 문천리 무학리 광청리 가암리 영귀리

면 명	리 명
송광면(40리)	내오리 중촌리 신흥리 진촌리 외송리 추동리 어전리 장동리 고부리 토수리 토점리 석현리 도룡리 금평리 대곡리 덕동리 산척리 고읍리 이읍리 장안리 월은리 인덕리 오룡리 구표리 대흥리 효정리 영봉리 방축리 죽산리 봉천리 무동리 상평리 하평리 유경리 후곡리 삭시리 중대리 신평리 왕대리 낙수리
상사면(37리)	흘산리 당촌리 응령리 내동리 금곡리 서정리 동백리 장수리 용계리 구계리 죽전리 안치리 석산리 도월리 미곡리 죽천리 노동리 용전리 장동리 봉래리 운곡리 초곡리 중현리 기동리 해룡리 쌍지리 회룡리 용암리 산전리 비촌리 서동리 선동리 오산리 오곡리 연동리 삼천리 마륜리
별량면(44리)	덕동리 신기리 간동리 내동리 검석리 상림리 하림리 진목리 장산리 학서리 우명리 화포리 금천리 무선리 현철리 고장리 거차리 신덕리 풍류리 대동리 마천리 이미리 동막리 신송리 회룡리 송천리 반곡리 석현리 봉덕리 장사리 무림리 초천리 대려리 신천리 예동리 용운리 장학리 송정리 정동리 송내리 신촌리 삼정리 백동리 수덕리
하사면(17리)	인덕리 조례리 월평리 수동리 덕흥리 안지리 간동리 신평리 대대리 내동리 연야리 무평리 신대리 오룡리 대동리 야동리 부흥리
도리면(13리)	오산리 오림리 흥두리 내동리 금성리 교항리 통천리 덕흥리 선암리 월곡리 양틀리 교곡리 지정리
장평면(14리)	인제리 남정리 신흥리 남제리 하평리 상평리 풍덕리 신기리 장항리 장천리 장명리 저천리 경내리 지막리
소안면(29리)	삼거리 송학리 와룡리 범죽리 장내리 청수리 매곡리 우명리 북정리 석현리 조비리 신기리 고지리 가곡리 용당리 죽림리 망북리 업동리 조곡리 요전리 생목리 신화리 덕암리 구암리 동외리 동내리 북내리 남내리 서내리
동상면(8리)	교촌리 내동리 운동리 두릉리 취룡면 노암리 이동리 세곡리
동하면(15리)	신기리 재궁리 동림리 구기리 신흥리 금산리 연화리 개화리 사창리 화천리 고정리 상고리 양동리 양촌리 장동리
초상면(23리)	대동리 영동리 중개리 하개리 용안리 죽림리 화산리 원산리 구기리 송정리 구룡리 용두리 도흥리 덕산리 칠동리 옥동리 척동리 석애리 신석리 온야리 대은리 서동리 두모리
초하면(9리)	금동리 과동리 소치리 대치리 진치리 동막리 상범리 호산리 진석리
내서면(22리)	초곡리 진목리 간원리 창령리 가정리 금산리 장천리 신전리 화목리 평사리 조산리 목촌리 상송리 하송리 검암리 덕천리 송기리 녹천리 수정리 서동리 온야리 신기리
외서면(22리)	농소리 덕치리 상율리 하율리 사미리 미타리 구암리 하고리 송곡리 수진리 용반리 가룡리 대전리 한동리 한산리 잠내리 월평리 기동리 보목리 두지리 상고리 사봉리
읍내면(11리)	동내리 동외리 남내리 남외리 서내리 서외리 성북리 평촌리 남촌리 옥산리 화원리

에 따라 순천군은 전라남도에 속하였다. 1897년에는 또 여수군이 신설되어 순천군 관할지역인 읍촌면 · 소라면 · 삼일면 · 여수면(쌍봉면)의 4면이 순천군에서 분리되었다. 그 결과, 불과 2년 만에 여수반도와 도서지역을 잃은 순천군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고 14면만이 남게 되어 이제는 바다와 별로 관계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

1908년에는 낙안군이 폐지되고 그 구역이 순천군과 보성군에 분속되었다. 즉, 옛 낙안군의 11면 중 읍내면 · 내서면 · 외서면 · 동상면 · 동하면 · 초상면 · 초하면 7면이 순천군에 병합되

고 나머지 고상면·고하면·남상면·남하면의 4면이 보성군에 이속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백제시대 이래 군의 지위를 지켜온 낙안군은 마침내 소멸되고 순천은 다소나마 그 경역이 늘어나게 되었다.